

이상현, “롤러대회, 지원대비 성적저조”

“지난 3년간 3억 5500만원 지원·성적은 올해 11위로 3단계 하락… 대회당 지원액 편차 60배 넘어”

전라북도체육회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체육회의 주먹구구식 종목지원이 도마에 올랐다.

15일 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상현 의원(남원1)은 “지난 3년간 롤러대회에 지원한 도비가 3억 5,500만원에 달하지만 전국체전 성적은 지난 해 8위에서 올해 11위로 오히려 3단계가 하락했다”고 꼬집었다.

이상현 의원은 주먹구구식 대회지원 방식에 대해서도 강하게 질타하고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2015년 이후 전주시와 남원시, 익산시에서 개최된 롤러대회는 총 6건으로 대회당 평균 5,900만원의 도비가 투입됐다. 하지만 실제 개별 대회당 지원액을 보면 최대 500만원에서 최대 3억2,000만원까지 60배

가 넘는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새만금국제롤러대회의 경우는 1일 대회에 2억원을 지원하는가 하면 전주국제롤러대회는 2일 대회에 3억2,000만원을 지원하기도 하여 선심성 지원이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상현 의원은 “대회별 도비지원에 편차가 심하다는 것은 체육회가 일정한 절차

와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탓”이라고 지적하고, “국제규모의 대회이긴 마찬가지인데도 도비지원액이 3배 이상 차이나는 경우도 있다”고 하면서 주먹구구식 대회 개최 지원 방식을 개선해서 객관성을 확보하고 생활체육 정착을 위한 체계적인 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하라고 주문했다.

/김진성 기자

김춘진 위원장, ‘여성소비가 뽐은 좋은 기업 대상식’ 참석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김춘진 위원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주)여성신문사 주최 ‘2017년 제20회 여성 소비자가 뽐은 좋은 기업 대상식’에 참석했다.

여성소비가 뽐은 좋은 기업 대상은 기업경영에 여성적 가치를 접목시켜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업의 발전에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제정됐다.

김춘진 위원장은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바람직한 기업문화를 확대 발전시키는 활동을 인정받아 심사위원회 선정위원장으로 참석하게 됐다.

김 위원장은 시상식 축사를 통해 “이번 시상식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을 여성 소비자의 눈으로 가려내어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성을 높인다는데 의미가 크다”며 “여성 소비자의 확고한 신뢰와 사랑을 받는 기업이 미래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좋은 기업임을 입증하는 대표적 기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국회 양성포럼 대표(2005~2008년), 제18대 여성가족위원회 위원(2008~2010년),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2014~2016년) 등을 역임하면서 여성 권익신장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김진성 기자



질문에 답하는 MB 비례인 강연을 마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인천공항에 귀국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비례인 출국 전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행보에 대해 “정치보복”이라고 말한 바 있다.

백경태, “명장육성·취업지원 사업 실효성 떨어져”

“취업률·자격증취득률 저조… 1년 지원기간 종료시 절반이 퇴사·씩씩이 채용도”

백경태(무주) 의원은 15일 경제산업국 행감에서 특성화고 명장육성사업이 사업 취지와 달리 학생들의 취업률과 자격증 취득률이 기대에 못 미친다면서 사업성과에 대한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실제 명장육성사업의 성과를 보면, 2015년 취업지원반의 취업률은 63.8%로 다소 부진했고 2016년 자격증취득률은 45.4%로 전년도보다 크게 하락했다.

백 의원은 “학교별로 예산지원을 일괄적으로 이뤄지다보니 동기부여가 떨어져 학교별로 취업률 통계와 자격증취득률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면서 개선방안으로 특성화고 학교별 실적에 따른 예산 차등지원 등의 대책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청년과 중장년 취업지원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1년간 최대 960만원을 인건비로 지원하는 청년취업지원사업의 경우 1년짜리 청년 취업 지원사업에 그치고 있어 사업 지속 여부에 대한 추궁이 계속됐다.

백 의원은 취업지원사업의 문제점으로 매달 80만원의 예산지원에도 불구하고 200만원 미만의 급여가 절반에 이르며, 지원기간 종료시 절반이 퇴사해 예산만 축내고 실효성 없는 사업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실제 2016년 사업 1년 뒤 고용유지율은 59%, 15년 사업은 55%로 1년 사업기간 종료 직후 고용유지율이 절반으로 하락했다.

심지어 올해 채용인원도 퇴사율이 높았는데, 전주 채용인원 100명 중 20명이 퇴사했고, 군산 111명 중 33명이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 백 의원은 몇몇 기

업이 한번에 10~20명씩씩씩이 채용이 어렵다는 것도 거론했다.

올해 남원의 A기업은 12명 채용에 4,000만원이 넘는 예산을, 원주 B기업은 17명 채용에 6,361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수혜기업이 다음해 계속 지원받는 중복지원 또한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4~5대 중장년층을 위한 4050 취업지원사업도 청년취업지원사업과 대동소이하다는 게 백 의원의 주장이다.

백 의원은 “청년들의 취업지원 혜택보다 기업 예산지원 사업으로 전락해 사업 취지를 상당 부분 상실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취업지원사업의 고질적 문제점을 해결할 특단의 방안을 모색하든지, 사업 축소 또는 추진여부 자체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진성 기자

김광수, '지방의회 공무원법 제정' 정책토론회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 활동 중인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이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지방의회 공무원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김광수 의원은 “현행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어 지방의회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및 전문성은 집행부에 비해 취약하여 지방의회의 온전한 감시·견제 기능을 발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현재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지고 있으며,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순환 근무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인해 지방의회 전문성과 책임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에 지방의회의 의장이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독립적인 인사권을 갖도록 하는 '지방의회 공무원법'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이 해당 지방의회와 관련된 사무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계속해서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김 의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강기홍 한국과학기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지방의회 공무원법 제정 가능성과 한계'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강기홍 교수는 “지방의회 공무원법은 의회소속 공무원이 집행부와 의회를 순환 근무함에 따라 발생하는 전문성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으며, 집행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제고할 수 있다는 면에서 필요한 법안”이라고 밝히며 “현재 우리나라의 기형적 지방자치를 극복하기 위해선 법률개정과 함께 헌법 차원의 자치권 명기 및 헌법기관 차원의 제도 등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토론회에는 김명종 국회사무처 법제관, 이동영 전국시도의회장협의회 수석전문위원, 김민훈 국민의당 행정안전위원회 정책전문위원, 김문철 전북 전주시의회 의원이 토론자로 나서 '지방의회 공무원법 제정'에 대하여 집중 토론했다.

/김진성 기자

경제산업국 행감… 도 경제위기 대응력 부실 거론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이학수)는 15일, 제348회 정례회 기간에 전북도 경제산업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양용호(군산2) 의원은 “군산 현대조선소의 조업 중단, 익산 넥솔론의 청산, GM군산공장, 하이트 전주공장, BYC전주공장의 철수와 매각 등 전북의 대표 기업들이 가동을 멈추거나 철수하는 움직임으로 일자리 감소와 지역 경제 붕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예상된다”며 현 전북경제의 위기상황을 꼬집었다.

이현숙(민중당 비례) 의원은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왔던 사회적기업들이 낮은 임금과 경영난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지적하면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에 신중을 기하고 지속적으로 성장가능한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분발할 것을 촉구했다.

백경태(무주) 의원은 “특성화고 명장육성사업이 사업취지와 달리 학생들의 취업률과 자격증 취득률이 기대에 못 미친다면서 사업성과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강용구(남원2) 의원은 “노내 청년실업률이 급증하고 있지만 전북도의 청년실업 해소대책은 새로운 정책시행 없이 기존 사업만 답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재만(군산1) 의원은 “군산 현대중공업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구직난을 호소하고 있지만 행정기관의 실질적인 대책이 부족하다면서 적극적인 관심”을 주문했다.

이학수(정읍2) 위원장은 “지난해부터 전북경제 위기론이 대두됐지만 도의 대응책 마련이 부족하다보니 이러한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며 도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했다.

/김진성 기자

제1회 전라북도 아리울 어버이 합창대회

의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합니다

대한민국 최초! 닭고기 동물복지 인증 획득

참! 착하게 키웠습니다

Real Fresh

동물복지 (ANIMAL WELFARE)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란?

사육하는 가축을 건강하게 키우는 것 외에도 추가적으로 가축의 기본적인 습성 및 본능을 최대한 영위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 보다 좋은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참프레 / 전북 부안군 행안면 옥여길 32-29 TEL: 063-580-6000 참프레몰: mall.charmfre.co.kr